

게이트키퍼 과정으로서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언론사 기자를 중심으로* **

권 신 오, 김 균 수

<국문요약>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기사작성에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지역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 500명을 대상으로 기자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적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보도자료 이용행태 연구결과 광주지역 기자들은 하루 평균 5.59건의 기사를 생산한다. 또 출입처에서 하루 평균 18.43건의 보도자료를 수신했으며 이 가운데 35.4%를 기사작성에 이용했다. 보도자료를 취재의 톱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36.2%, 리라이트(Rewrite) 44.8%, 보도자료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는 18.9%였다. 리라이트와 원문이용을 더하면 결국 보도자료의 63.79%를 기사작성에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구조적인 요인영향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 유형에 따라서는 신문 40.37%, 통신 30.57%, 방송 25.57%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부기관이나 단체, 사주 등으로부터 편집에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부서와 직급 등은 보도자료 이용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기자 개인적인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는 성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 기자 32.1%, 여성 기자 50.7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언론사 근무 연수, 출신학교에서의 언론학 전공여부, 특히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 등은 보도자료 이용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직업만족도도 보도자료 이용과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임금, 미래비전, 사회적 영향력 등 개인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성격이 강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보도자료, 게이트키퍼, 구조적 요인, 개인적 요인, 지역언론, 광주광역시

A Study on the Use of Press Releases as a Gatekeeping Process, Focusing o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Press

Kwon, Shin-oh, Kim, Kyun-so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how reporters activ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use press releases for the preparation of news accounts and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ir influence on the news articles that they prepa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500 reporters for newspapers,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or networks, and news agencies in Gwangju District. First, it was found that reporters in Gwangju District produced on average 5.6 news articles per day.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y

received 18.4 press releases per daily news beat, among which 35.4% were used as news articles. Further, it was found that using press releases as a tip to suggest coverage of a topic accounted for 36.2%; re-writing a release in the journalist's own words, 44.8%; and quoting part of the release in a news article, 18.9%. When different uses are factored in, 63.8% of the press releases are used for news article prepar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utilization varied by press type, from newspapers (40.4%) through news agencies (30.6%) down to broadcasting (25.6%).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porters' wage levels and their use of press releases. However, the more that reporters thought that editing interference was severe from an outside institution or a corporate proprietor, the higher was the likelihood of reliance on press release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an affiliated division and position and the use of a press release. Third, it was found that gender showed the biggest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reporter's personal profile and the use of press releases, with a variance between 32.1% of male reporters and 50.8% of their female counterparts.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the length of service in the press, the journalists' undergraduate majors (specifically, whether they took degrees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and their closeness with publicists on a specific news beat were found not t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to reliance on press releases. Even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use of press releases. However, the complexity of job satisfaction measures due to the intersection of personal and structural factors suggest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analysis.

[Keywords] Press Release, GateKeeping, Structural Factor, Personal Factor, Local Press, Gwangju Metropolitan City

* 권신오(주저자 Kwon, Shin-oh, E-Mail: ppori5@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전남대학교(주저자) 현직: 광주 CBS 기자

**김균수(Kim, Kyun-soo, E-Mail: kimk@jnu.ac.kr)
학위취득대학: 엘라베마 대학 현직: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Received: Jan. 14. 2015 Revised: Jan. 17. 2015 Accepted: Feb. 15. 2015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취재 대상 기관, 이른바 출입처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행위는 이미 일상화됐다는 말이다. 참고에 그치지 않고 보도자료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기사에 붙이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지만, 언론 현장에서는 이런 행위조차도 이미 ‘관행’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랜 것으로 보인다(남효윤·구교태 2004; 임현수·이준웅 2011; 박용백 2012).

서철모(1990)는 서울특별시가 1989년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18.3%가 신문에, 13.7%가 방송에 게재됐다고 보고했다. 성해용(1999)은 대기업과 정당의 보도자료 인용률이 40%에 달하는 상황을 확인했고, 김희정(2006)도 제주대학의 보도자료 신문 게재율이 52.1%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에서는 최소한 25년 이전부터 언론의 보도자료 의존이 문제가 돼 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반영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시걸(Sigal 1973)은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20년 동안 1면 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새먼(Saman 1976)은 환경 관련 기사의 50% 이상이 보도자료에 의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동양과 서양 모두 1970년대 이후 언론의 보도자료 이용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연구는 그 과도한 의존에 대한 심각성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언론이 취재 아이템의 선정

과 취재, 기사 작성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환상’에 가까워 보인다. 이러한 지적은 언론이 정부나 기업체, 각종 이익단체 등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을 떳떳하지 못하거나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언론이 보도자료를 얼마나 인용하고 있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해 온 경향이 있다. 언론 보도 가운데 보도자료를 이용한 것의 비율이나 출입처의 성격에 따른 인용율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언론의 비윤리성과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언론이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쪽으로 연구의 경향이 확대·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연구의 한 축은 보도자료 의존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는 부류다. 남효윤(2001, 2004, 2009)은 신문사의 소유구조와 재무상태, 자본의 성격에 따라 보도자료 의존도가 달라진다고 보고했다. 즉 신문사의 구조적인 요인이 취약할수록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 개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됐다. 한선·이오연(2010)은 실제 뉴스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보고했다. 직업의식 결여와 이에 따른 언론 사명포기감이 심할수록 보도자료 의존이 심하다는 말이다. 정승호·박선희(2007)도 열악한 언론 환경 속에 기자 스스로 패배의식과 매너리즘에 빠져 직접 발굴과 취재보다는 보도자료 등 소스에 의존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접 취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언론의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보도자료 의

존이나 기자 개인적인 요인에 따른 연구가 언론에 있어 ‘불편한 진실’인 보도자료 의존문제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높게 평가할만하다. 특히 기자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비록 소수지만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송병원·이명천·김요한 2014; 한선·이호연 2011)의 노력은 이전의 기술적(descriptive) 연구에서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작 보도자료를 출입처에서 직접 수신하고 취재와 보도에 이용하는 기자 또는 기자 집단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실제 기자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이유로 보도자료를 이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 등 연구방법 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분석은 연구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요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런 만큼 실제 기자를 상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처방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 및 기자가 활동하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신문과 방송, 통신사 기자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언론사 수와 종사자가 많은 만큼 매체의 종류와 자본의 성격, 언론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또 서로 엇갈리는 지역적 특성이 강해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보도자료 이용 행태를 조사하고, 언론의 구조적인 요인과 기자 개인적인 요인이 보도자료 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함께

분석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게이트키퍼

게이트키퍼(gatekeeping)은 뉴스 미디어 조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어떤 메시지라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gate)을 통과해야만 한다. 모든 메시지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메시지는 선택되고 어떤 메시지는 거부되는 과정이 따를 것이다. 이처럼 메시지의 취사,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게이트키퍼라고 하고, 게이트키퍼를 하는 사람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라고 한다. 게이트키퍼는 넓게는 편집국 또는 보도국으로 대표되는 언론 조직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다 좁은 의미로 데스크나 기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에 관한 정보들의 유통 채널에서 그 관문(gate)을 지키면서 어떤 뉴스는 신문에 보도해 독자들에게로 흐르게 하고 또 어떤 것은 차단시켜 버리는 등의 취사선택을 한다(Shoemaker & Vos 2009).

게이트키퍼들의 뉴스선택 결정에는 그 자신의 경험과 태도, 기대 등에 바탕을 둔 주관적인 가치판단과 소속된 조직의 준거와 관습, 그리고 경영진, 편집인들의 작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통제가 작용한다. 박유봉(1987, 67)은 “게이트키퍼들의 뉴스선택 결정에 미치는 통제요인으로 고용주의 권위와 제재, 전문인으로서의 규범과 윤리, 개개인의 가치관과 배경, 동료로부터의 영향, 수용자의 요구와 반영 등을 들었다. 게이트키퍼가 어떤 것을 뉴스로 제작할 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논

조로 보도할지까지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이트키퍼링, 나아가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먼저, 슈메이커와 리즈(Shoemaker & Reese, 1996)는 기자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태도가 뉴스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언론사의 데스크는 뉴스의 편집과 인적관리, 체제관리, 판매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자들의 취재와 기사작성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Shoemaker et al. 1991, 39)며 언론 체계에 있어서 게이트키퍼와 이를 통제하는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유재천·이민웅(1994, 62)는 “국내 언론인 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4.6%가 기자 개인의 개인적 성향이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고 보고했다. 남효운(2009, 119)는 “개인적인 요인이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게이트키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구조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소속 언론사의 종류(신문, 방송, 통신사)를 들 수 있다. 또 소속 언론사의 재무구조나 소속 부서, 임금, 직위 등도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기자 개인의 인구학적 속성을 비롯해 가치관과 직업 만족도, 언론 윤리 의식, 재직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게이트키퍼링에 대한 연구는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하고, 게이트키퍼에 대한 연구는 게이트키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다.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기자들이 기사 생산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최소 20%대에서 최고 60% 이상을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도자료의 이용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이트키퍼인 기자들이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이유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밝히는 것이 게이트키퍼링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게이트키퍼링 과정으로서의 보도자료 이용

보도자료는 기업이나 정부 등 조직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언론기관에 뉴스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문서, 보도 의뢰서, 보도요청서를 의미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배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제공하는 자료다(김진환 2004). 특히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보도자료는 공신력과 중요성 등에서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홍보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이며,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구로 인정된다(Walter & Walters 1992).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도 정부(또는 공공기관 등)의 보도자료는 신뢰성과 정보가치가 높은 반면 이용 또는 인용 시 오보나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낮아 비교적 안심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다는데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오프라인 매체 종사자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언론인 의식조사’를 보면 77.4%의 기자가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의존도가 2003년 81.2%에서 2005년에는 77.4%, 2007년 74.8%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9년에 다시 소폭 상승한 것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보도자

료 인용 정도가 “보통이다” 38.2%, “다소 의존한다” 38.8%, “크게 의존한다” 7.6%로 보도자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1.5%,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는 13.9%에 불과했다.

기자가 의존하는 것은 보도자료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기업 등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주제의 과거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이용하거나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기사를 이용하는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2009년 기자의식조사에서 기사 소스에 대한 의존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보도자료 의존도가 2.85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련 주제 과거 기사 2.63, 뉴스통신사 기사는 2.58점이 었다(한국언론재단 2009). 레이히(Reich 2010)가 5점 척도로 세계 언론의 보도자료 의존도 등을 조사한 결과 평균 2.5로, 한국보다 낮게 나왔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 2.13, 오스트리아 2.15, 미국 2.27, 스페인 2.24, 호주 2.55, 독일 1.97 등이었다. 이처럼 기자가 취재원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제공된, 또는 이전에 생산된 기사를 재인용해 사용하는 행태가 만연하면서 ‘처널리즘(churnalism)¹⁾’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뉴스를 대량으로 단시간에 생산해야 한다는 핑계로 정부나 기업체 보도자료, 통신사 기사 등을 오려 붙이기(cut & paste)하거나 긁어서 붙여(drag & paste) 기사형태로 만들어 보도하는 이른바 ‘기사복제’의 행태를 꼬집는 말이다. 언론의 고

1) 처널리즘(churnalism)이란 말은 영국BBC기자가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자유기고가 닉 데이비스(Nick Davis)가 2008년 그의 책 ‘평평한 지구(Flat Earth News)’라는 책에서 보도자료나 통신사 뉴스를 베끼는 언론행태를 비판하면서 유행했다.

유 기능인 비판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그에 앞서 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보도자료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PR학과와 언론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PR학계에서는 주로 보도자료가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언론학계에서는 보도자료의 의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

먼저 PR측면에서 모튼(Morton 1986)은 어떤 보도자료가 신문에 잘 실리는가를 191개 신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혔다. 최근 관심사와 행사, 소비자 정보 등 수용자 지향적인 정보와 관련이 있는 보도자료가 언론에 잘 반영된다고 보고했다. 하레(1978)는 보도자료의 길이와 신문 기사에 반영된 분량을 비교한 결과 20%정도의 보도자료가 전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학계에서는 주로 보도자료에 대한 의존문제를 지적했다. 시걸(Sigal 1973)은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의 20년 동안 신문 1면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보에 대한 의존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민간 부분에서도 점차 보도자료와 같은 공식적인 소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크만(Sachman 1976)은 환경 관련 보도자료의 50%가 기사에 반영됐음을 확인했고, 마틴과 싱글터리(Martin & Singletary 1992)는 미국의 몇 개 주정부의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가 최소 1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월터스와 월터스(Walters & Walters 1992)는 미국 정부 부처가 1990년에 발표한 236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85.9%가 신문에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보도자료가 통신사나 방송사를 통해 노출

될 경우 신문 게재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광고와 PR학계는 보도자료의 전제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언론학계에서는 과도한 보도자료 이용, 나아가 의존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다. 김희정(2006)은 제주 대학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사화 비율이 52.1%에 이르렀고, 보도자료와 기사의 제목이 일치하는 기사도 35.7%나 됐음을 밝혔다. 이 미경(2001)은 한 의료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신문 기사 반응을 연구했는데, 흥미도가 높을 수록 반영 비율이 높았고, 전문적인 내용일수록 내용 수정 없이 기사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했다. 최동성(2000)은 전주시 보도자료를 분석해 신문에 56.4%, 방송에 47.5%가 전재됐다고 밝혔다. 성해용(1999)은 정부 부처와 대기업의 보도자료를 분석했는데, 경제나 행정을 막론하고 보도자료 반영비율이 40%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도자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도자료의 전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분석 방법은 신문 또는 방송의 기사를 분석해 반영 빈도와 게재된 자료의 길이, 종류와 성격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보도자료의 배포의 목적이 기사에 반영되는 것인 만큼 그 목적에 걸맞는 연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를 취재 아이템으로 채택하거나 실제 기사로 작성하는 기자, 즉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실증적인 방법을 통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지면분석을 넘어 실제 기사를 둘러싼 환경적·구조적인 요인, 또는 기자 개인적인 요인이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자들의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보다는 어떤 이유 또는 어떤 요인 때문에 기자들이 보

도자료에 의존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지면 분석보다는 언론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수신하고 이를 활용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말을 듣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3.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언론의 구조적 요인은 기자가 보도활동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은 유형적인 요인과 무형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형의 것으로는 언론사의 재무구조와 조직, 인원 수, 취재 시스템(하드웨어적인) 등을 들 수 있다. 또 무형의 요인은 소속 언론사의 성향(보수 또는 진보)과 조직 문화, 위계질서 등을 들 수 있다.

남효윤(2009, 252)은 영남지역 4개 언론사의 재무구조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재무상태가 좋을수록 지방정부와 관련한 정치와 행정 분야에 관한 보도자료 이용에 부적인 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할수록 모든 분야에 있어 보도자료를 지면에 더 많이 반영했다. 재무 규모 또한 비슷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는데, 재무 규모와 상태가 좋을수록 보도자료 의존이 약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과 이로 인한 언론사 조직과 노동형태의 변화도 보도자료 의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정승호·박선희(2007, 56)는 인터넷의 상용화로 노동시간이 짧아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취급하는 정보량이 많아져 오히려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보고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저널리즘(distance journalism)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신속

성과 심층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의 의존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또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신문사 편집국 등 부서가 축소, 통합되면서 취재 인력이 감축돼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근무여건의 악화는 기자의 현장취재, 직접 취재 기회를 줄이고, 반대로 기업이나 관공서 등의 보도자료나 기존 기사,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언론사 안팎에서 게이트키퍼에게 가해지는 제약도 구조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남효윤(2009)은 게이트키퍼에 가해지는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언론 내부와 외부 요인으로 다시 분류했다. 언론 내부의 제약 요인으로는 언론관련 법규와 제도, 사주, 편집국 간부 등을 들었다. 외부적인 제약요인으로는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각종 이익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을 들었다. 이들 언론 안팎의 제약 요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게이트키퍼인 기자의 취재와 기사 작성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말하면 이들 제약 요인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적게 받느냐에 따라 게이트키퍼의 고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게이트키퍼인 기자들이 이들 외부요인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게이트키퍼 연구에 있어 큰 영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 개인이 갖는 정치적 성향이나 출신배경 등이 전혀 보도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과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남효윤

2009). 실제로 유재천·이민웅(1994)이 국내 언론인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4.6%가 기자의 개인적 성향이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결국 기자 개인의 성향과 태도는 뉴스 보도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 기자 개인의 성향은 보도 이전 단계인 취재 아이템의 선택과 보도의 행태에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취재 아이템 선택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보도의 핵심주체이자 최일선 담당자로서 기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보도의 내용과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채택할지 여부와 이용 또는 의존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보도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 게이트키퍼인 기자를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과 기자 개인적 요인이 보도자료의 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광주지역 기자의 보도자료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광주지역 기자의 구조적인 요인은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광주지역 기자의 개인적인 요인은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있어 보도자료를 얼마나 이용하고 의존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들이 출입처 등에서 하루에 수신하는 보도자료의 개수와 이것을 기사에 어떻게 이용하는 지를 물었다. 특히, 보도자료 이용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정도와 사실 확인 여부, 보도자료 의존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했다.

<연구문제 2>는 게이트키퍼인 기자를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들이 보도자료 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적인 요인은 소속된 언론사의 종류와 급여수준, 소속 부서, 직급, 소속 언론사의 보도자료 이용 규정의 유무, 외부요인의 제약 정도 인식 등이다.

<연구문제 3>은 기자 개인적인 요인이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기 위해 설정했다. 성별과 출신 학과, 직무 만족도, 근무 연수 등과 보도자료 이용 정도 등의 관계를 분석했다.

2. 연구방법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보도자료를 취재 아이템으로 채택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스크와 기자들로부터 직접 이용행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연구방법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기자의 반응과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분석대상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방송, 통신, 신문기자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지역적으로 광주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전국을 커버리지로 하는 이른바 중앙지가 등록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신문사가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지역신문의 활동이 활발한(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역이기 때문이다²⁾. 또 여기에 2개의 통신사와 5개의 방송사가 운영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 보유 지역으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자료 제공, 이용 등이 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조사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에 가입한 기자는 500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취재를 하지 않는 편집·보도국장과 논설위원, 편집 전문기자,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주재 기자와 여수MBC와 목포MBC, 전남CBS 기자 등은 설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한 대상은 14개 언론사 소속 기자 238명이었다. 직급별로는 데스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출입처를 갖고 취재도 하는 부장이 68명, 출입처 등을 상대로 취재를 전담하는 평기자와 차장급 기자 170명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2) 설문의 구성 및 조사

설문은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1부에서는 근무여건과 관련해 직업 만족도와 인터넷

2) 2014년 12월 현재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한 신문사 수는 부산 2개, 충북 5개, 경남·울산 6개, 대구·경북 6개, 인천·경기 5개, 광주 7개, 대전·충남 3개, 강원 2개, 전북 5개, 제주 4개다.

등의 이용 실태, 업무량 등을 질문해 설문에 대한 몰입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2부에서는 21개 문항에 걸쳐 취재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물었다. 하루 생산하는 기사의 수와 종류, 하루 수신하는 보도자료 수, 이의 이용 또는 의존 정도, 사실 확인 여부,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 등이다. 3부에서는 인구학적 속성과 언론 관련 학과 전공 여부, 직급, 근무 연차, 급여 수준 등을 7개 문항에 걸쳐

설문했다. 분석 유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실제 설문은 2013년 7월 15일부터 20여 일에 걸쳐, 광주소재 국립대학 신문방송대학원 생들의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또 이들 대학원 생들과 함께 코딩을 했고, 코딩 데이터는 SPSS PASW 18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했다. 각 문항의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와 상관관계, 회귀분석, 변량분석(ANOVA) 등을 실시했다.

<표 1> 속성에 따른 분석유목 및 측정방법

속 성	분석유목 및 측정방법
이용행태	-하루 생산하는 기사 건수 / 기사의 종류 : 하루 ()건 / 스트레이트,기획기사(리포트),온라인기사 -보도자료 수신 건수 : 하루 ()건 -보도자료 이용 방법 : 취재팁 / 리라이트(rewrite) / 원문이용 -다른 기자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 : ()%정도 -사실 확인 여부 : (1=확인 안함 5=모두 확인)
구조적 요인	-언론사 종류: 신문, 방송, 통신 -소속 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 지역사회, 기타 -직위: 평기자,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논설위원 -근무 연차: ()년 -외부요인 제약 정도 인식 : 사주, 편집국 간부, 언론 법규 와 제도,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각종 이익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약 정도를 각각 5점 척도로 측정 -급여수준 :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개인적 요인	-성별 : 남 / 녀 -직업 만족도: 5점 척도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 5점 척도 -보도자료 원문 인용에 대한 인식 : 5점 척도 -출신 학과: 언론, 비언론 학과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1> 보도자료 이용 행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은 광주지역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데 수신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자들의 하루 작성 기사 수, 하루 보도자료 수신 건수, 보도자료 본문을 인용하는 비율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광주지역 기자들의 하루에 작성하는 평균 기사 수는 5.5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스트레이트 기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에 수신하는 보도자료는 평균 18.43건이었으며, 평균적으로 6.53건(35.44%)을 실제 기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보도자료 이용행태 분석 요약

분석항목	분석결과
1일 기사작성 건수	5.59건(단신:4.2,기획·리포트:0.91,사설·칼럼:0.07,온라인:0.41)
1일 보도자료 수신건수 / 이용 건수	18.43건 / 6.53건(35.44%)
이용 유형	취재팁: 36.21%, 리라이트:44.86%, 원문전제:18.93%
팩트 확인 여부	확인:3.4%, 비확인:2.4%
보도자료 지침 유무	지침 유:44.1%, 무:52.0%

이 중 보도자료를 취재의 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36.21%, 리라이트해 기사로 만드는 비율이 44.86%, 보도자료의 원문이나 일부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비율이 18.93%로 조사됐다. 보도자료를 리라이트한 것(간접인용)과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것(직접인용)을 더하면 무려 63.79%에 이른다. 보도자료가 배포한 기관, 단체 등의 의견과 입장, 이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근본 목적을 감안하면 직접인용은 말할 것도 없고, 간접 인용하는 경우도 배포자의 의도를 상당 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언론사 또는 기자 고유의 시각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처널리즘’이 만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기자들은 보도자료의 원문 그대로를 얼마나 기사에 인용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균 49.71%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 응답을 한 기자들의 실제 반영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또는 취재 아이템을 선정할 때 있어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즉 자신의 행태는 솔직히 드러내지 않은 반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빌어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제3자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자들은 수신한 보도자료를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83.4%는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2.4%만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은 하지만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속 언론사 또는 편집·보도국 차원에서 보도자료나 통신기사 전제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4.1%가 별도의 지침이 없고, 52.0%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원문을 기사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속

언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5점 척도 측정에서 신문 기자들은 평균 3.33점, 방송기자는 3.81점으로 “약간 문제가 된다”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통신사 기자들의 평균은 2.88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2. <연구문제 2> 언론사 구조적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

<연구문제 2>는 언론사의 구조적 요인과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의 유형, 임금, 소속 부서 등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해 각각의 변인들이 보도자료 반영비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언론사의 유형은 신문, 방송, 통신의 세 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반영비율은 신문 40.37%, 방송 25.57%, 통신 30.57%로 나타났다. 이들 3가지 유형의 언론사별로 보도자료 이용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언론사 유형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66, p<.05$).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임금과 보도자료 기사반영 비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임금과 보도자료 기사반영 비율 사이에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01$).

<표 3>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119	-0.239**	0.009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언론사 유형과 임금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보도자료의 이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광주지역 신문사들은 재정적 구조가 열악하고 기자들의 임금이 다른 종류 언론사와 비교해서 열악하다는 기존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광주지역 신문에 대한 연구들은 재정적 열악함이 지역신문의 질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허진아·이오현(2009)은 광주드림의 재정적 열약성이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통신기사의 의존도를 높이고 심층성과 전문성이 낮은 기사의 출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신문사가

통신사나 방송사에 비해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는 유의미했다($F=303.178, p<.05$). 이 연구에서는 취재 인력(기자 수)과 보도자료 이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 열약성으로 인한 낮은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속 부서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 정도의 차이분석을 위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체육부, 지역사회부, 기타의 여섯 항목으로 분류해 측정했으나 소속 부서에 따른 실제 기사반영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게이트키퍼 이론에서는 첫 번째 게이트키

퍼가 취재기자이고 이후 편집국이나 보도국의 간부들이나 사주에 의한 압력이 게이트키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압력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편집·보도국 간부, 사주, 언론관련 법·제도,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이익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지역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활동을 얼마나 제약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

고, 그 결과가 보도자료 이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표 4>에서 보듯이 언론사의 사주,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광고주, 이익단체에 의한 제약이 심하다고 평가할수록 보도자료의 기사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외부 기관, 사주의 영향과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보도자료 이용 비율이 높았다.

<표 4> 외부요인 제약 인식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지방정부나 정치권력	124	0.204*	0.023
언론관련 법·제도	124	0.147	0.103
사주	124	0.212*	0.018
편집/보도국 간부	123	0.147	0.105
광고주	123	0.315**	0.000
이익단체	124	0.223*	0.013
언론관련 시민단체	124	0.080	0.377

3. <연구문제 3> 기자 개인적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

<연구문제 3>은 기자의 개인적인 속성이 보도자료 등의 이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속성으로는 인구학적인 속성과 함께 근무 연수, 직업만족도,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 자기검열의 정

도 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했다. 성별에 따른 보도자료 이용에서는 남성이 32.16%, 여성이 50.7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285, p<.01$).

<표 5> 성별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p
남자	101	32.16	23.025	2.291	-3.285	0.001
여자	22	50.77	28.591	6.096		

직업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하여 매우 만족은 5점까지 측정했으며, 보도자료 실

제 기사반영 비율과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분석결과, 직업만족도와 실제 기사 반영 비율 사이에는 약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Pearson 상관계수=-0.230, $p<.05$). 즉,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직업만족도와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123	-0.230	0.011*

언론사에서 근무한 연수와 보도자료 기사 반영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earson 상관계수=0.088, $p=0.340$).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때의 전공이 언론 관련 학과였는지 비언론 학과였는지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대학에서의 전공은 보도자료 기사화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687$, $p=0.494$).

출입처 홍보담당자로부터의 보도자료 기사화 요청을 받은 경험 사이에는 낮지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와 보도자료 기사반영 비율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입처 홍보담당자와 친하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 요청이 있을 경우 더 많이 반영해주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와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

	N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CORREL(친밀도, 요청경험)	127	0.239**	0.007
CORREL(친밀도, 기사반영)	124	0.15	0.086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기사작성에 어떻게 이용하고, 여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보도자료를 보도에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 언론학계를 중심으로 기자들의 과도한 보도자료 의존을 문

제로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그 이용 정도를 연구해 왔다.

언론학계에서는 보도자료를 기사에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에 광고나 PR학계에서는 보도자료가 가능한 많이 기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보도자료의 성격과 내용, 형식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졌다.

하지만 언론학계 연구에서도 취재 아이템

을 선정하고 실제 기사를 작성하는 게이트키퍼인 기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보도자료 이용 행태 등을 연구한 결과물은 많지 않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양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활동하는 광주광역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도자료 이용행태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은 첫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행태 즉, 하루생산 기사 건수와 거기에 보도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했다. 둘째, 언론사 종류와 소속 부서, 임금 수준, 외부요인 제약정도 등 기자를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셋째, 성별과 근무 연차, 직급 등 기자 개인적인 요인과 보도자료 이용행태, 그리고 이용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연구문제1> 보도자료 이용행태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은 하루 평균 5.59건의 기사를 생산한다. 그 중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자들은 자신들의 출입처에서 하루 평균 18.43건의 보도자료를 수신했으며 이 가운데 35.4%를 기사작성에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취재의 톱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36.2%, 리라이트해서 기사로 쓰는 경우는 44.8%였고, 보도자료 원문의 일부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하는 경우는 18.9%였다.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 비율은 49.7% 정도로 생각했다. 또 리라이트해서 기사로 작성(44.8%)하거나 보도자료 일부를 직접 기사에 인용(18.93%)하는 경우를 더하면 63.79%로, 기존 보도자료 이용행태 연구들과 비슷한 수치

를 얻을 수 있었다. 보도자료 이용과 관련해 지침을 갖고 있는 언론사와 없는 언론사가 반반으로 나뉘었으며, 83.4%의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이용할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기자들의 소속 언론사 종류에 따라서는 보도자료 이용에 대해 5점 척도 측정 점수로 신문기자 3.33점, 방송 3.81점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기자들은 2.88점으로 보도자료 이용에 “보통이다” 수준으로 인식했다.

<연구문제 2>를 위한 분석결과, 언론사 유형에 따라 보도자료 이용에 차이가 있었는데, 신문 40.37%, 통신 30.57%, 방송 25.57%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보도자료 이용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이 높을수록 이용도가 낮고, 임금이 낮을수록 이용도가 높다는 말이다. 이를 언론사 종류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 통신이 신문보다 보도자료 이용도가 낮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겠다. 외부기관이나 단체, 사주 등으로부터 편집에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언론사 종류 즉 방송, 통신에 비해 편집권 독립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신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속 부서와 직급은 보도자료 이용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구문제 3>을 위한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보도자료 기사화 정도는 남성 기자 32.1%, 여성 기자 50.77%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직업만족도와 보도자료 이용 정도는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족도가 높을수록 보도자료를 적게 이용하고 반대로 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용 정도가 높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언론사 근무 연수, 출신학교에서의 언론학 전공여부, 특히

출입처 홍보담당자와의 친밀도 등과 보도자료 이용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광주광역시 기자들은 하루 평균 5.54건의 기사를 생산하고, 18.43건의 보도자료를 수신한다. 보도자료의 63.79%를 기사에 직, 간접적으로 이용한다. 남성 기자 보다 여성기자가 보도자료를 더 많이 이용했다. 언론사 종류에 따라서는 신문→통신→방송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기자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성별과 직업만족도는 영향이 있었지만, 근무 연수와 언론학 전공여부,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는 관련이 없었다. 구조적인 요인 가운데는 임금 수준, 매체 독립성 등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속 부서는 관계가 없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언론 현장에서의 보도자료 이용 행태를 상당 부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성별’과 ‘직업만족도’가 보도자료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언론현장과 연결지어보면, 여성 기자의 경우 남자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 취재 기회가 적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 취재 보다는 손쉽게 기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으로 보도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일부 신문사 여성 기자는 취재와 더불어 편집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취재 시간 부족을 보도자료로 보충하는 경향도 이 같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업 만족도도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과는 다른 측면에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만족도는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임금 수준이나 미래 비전, 외부요인 제약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구조

적 요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만족도와 보도자료 이용정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소속 언론사 종류와 직업만족도도 이와 같은 순위(신문→통신→방송 순)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직업적 비전이 약한, 그리고 외부요인의 제약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신문기자들의 직업만족도가 낮다. 이들 신문기자의 보도자료 이용률이 방송과 통신 기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 수준이 방송이나 통신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문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률이 높은 것이나, 직업의 미래 비전에 부정적인 신문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률이 다른 매체에 비해 높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요인 가운데 보도자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에 국한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속 부서, 근무 연수, 언론학 전공여부, 홍보 담당자와의 친밀도 등이 보도자료 이용과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다. 언론사 연수가 많을수록 손쉽게 기사를 만들기 위해 보도자료를 이용할 것이라는, 정치부나 경제, 문화체육부 등의 부서가 사회부보다 더 많은 보도자료를 쓸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언론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결국 기자가 어떤 학문을 전공했는지, 연차가 얼마나 됐는지, 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보다는 어떤 종류의 언론사에 근무하느냐가 보도자료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VI.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게이트키퍼인 기자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언론학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기자들의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나 광고, PR학계의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 위한 콘텐츠, 유형 등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했다. 실제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받고 이를 다시 보도에 활용하는 당사자인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그 자체가 언론학계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울러 보도자료 이용행태와 인식의 차이 등을 도출해서 제시함으로써 언론 현장을 비교적 실증적으로 반영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를 기사에 인용하는 비율로 나타난 63.79%도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조사의 신뢰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률은 53%로, 언론계를 포함한 전문직군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

광주지역 기자들이 보도자료 이용에 대해 비교적 중립 내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보도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소속 언론사 유형과 임금 등 구조

적인 요인이 개인적 요인에 비해 보도자료 이용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언론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연구의 성과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은 광주광역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 지역 담당기자나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제외했고, 취재 기자의 절반 정도를 대상으로 한데 따른 대표성의 문제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의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며, 분석 유목도 기자 개인적인 요인을 5가지, 구조적인 요인을 4가지 정도로 지나치게 단순화했다. 연구의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니 뉴미디어 환경과 기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더 많이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자 개인적인 성향이나 경험을 분석 항목에 포함하지 못했고, 보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광고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한계라 하겠다.

보다 많은 변인을 추가하고, 기자들에 대한 개별적, 집단적인 인터뷰를 통해 보도자료 이용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 나아가 언론현장에서 이른바 ‘불편한 진실’로 취급되는 보도자료 이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Korean References)

- 구교태. 2012. “선거 캠페인 후보자의 보도 자료 특성에 대한 연구: 제19대 대구 지역 국회 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계명대 사회과학논총』 제31권 1호, 31-45.
- 고영철. 2003. “한국 지방일간지의 기능 및 역할가정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47권 6호, 165-193.
- 김세철. 2001. “지역신문에 대한 언론인의 의식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논총』 제20권 2호, 67-83.
- 김송희·윤석년. 2009.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지역신문 뉴스생산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 9권 2호, 207-242.
- 김영호·강준만. 1995. 『현대사회와 지역언론』. 서울; 나남출판.
- 남효윤. 2005. “언론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6호, 233-256.
- _____. 2009. “언론의 소유구조가 분야별 보도자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3호, 103-137.
- _____. 구교태. 2004. “지역신문의 지방정부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5권, 41-64
- 박용백. 2012. 『지방자치단체 보도요청과 언론사의 보도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 교 석사논문.
- 송병원·이명천·김요한. 2014. “지역신문의 보도자료 이용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고의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4권 4호, 146-188.
- 손태규. 2011. 『전통언론과 뉴미디어: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하는가?』. 서울:관훈클럽.
- 임현수·이준웅. 2010.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5권 2호, 5-31.
- 정승호·박선희. 2006. “인터넷 취재로 인한 언론인의 취재활동 및 노동여건, 언론사내 조직위상의 변화.” 『언론정보연구』 제 43권 2호, 37-69.
- 패멀라 J. 슈메이커 저. 최재완 역. 2013. 『게이트키퍼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 2009. 『한국의 언론인 2009. 제11회, 기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12. 『신문사 재무분석』.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_____. 201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요약 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선·이오현. 2009. “지역신문기자의 작업문화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 사회』 제18권 4호, 2-36.
- 황태식. 2012. 『저널리즘 원리와 실제』. 서울; 명인문화사.
- 허진아·이오현. 2009. “지역신문기사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6호, 449-484.

참고문헌(English References)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McQuail, D. 200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 Ltd: 데니스 맥퀼리 저. 양승찬·강은미·도준호 역. 2002. 『매스커뮤니케이션이론』. 서울: 나남출판.
- Merrill, J. 1997. *Journalism Ethics*. New York: St Martins's.
- Shoemaker, P. J., & Tim P. Vos. 2009. *Gatekeeping Theory*. New York: Routledge
- Shoemaker, P. J., & Stephen D. Reese.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edia*, N.Y.: Longman: 슈머이커·리세 저. 김원용 역. 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나남출판.
- _____ & Tim P. Vos. 2009. *Gatekeeping Theory*. New York: Routledge.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Lexington, Mass.: D.C. Heath and Company.
- The Missouri Group. 2005. *News Reporting and Writing*. 8th.edition. Boston: Bedford/St. Martin's.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Han, Seon and Oh-hyun Lee. 2009. "A Study on the Newsroom Culture and Identity formation of Local Journalists." *Journal of Media & Society* 18(4), 2-36.
- Her, Jin-ah and Oh-hyeon Lee.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Forces that Influence the Article Production of Local Newspapers Focus on the Article Production of Gwangjudream."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6, 449-484.
- Jung, Seung-ho and Sun-hee Park. 2006. "A Study on Online Journalism and the Change of News Production System : In-depth Interview on National and Local Newspaper Journalist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3(2), 37-69.
- Kim, Se-chul. 2001. "A Examination of Journalist's Consciousness on Local Newspapers." *Journal of Social Science*(Keimyung University) 20(2), 67-83.
- Kim, Song-hee and Shuk-nyun Yoon. 2009. "A Study on the Change of Local Newspaper News Production Process by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9(2), 207-242.
- Kim, Won-young. 1997. *Mass Media Sociology*, Seoul: Nanam.
- Kim, Young-ho and Jun-man Kang. 1995. *Modern Society and Local Press*, Seoul; Nanam.
- Koh, Young-chul. 2003.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Perceptions of Readers and Journalists about the Functions and Roles of Local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165-193.
- Korea Press Foundation . 2012. *Analysis of Newspaper Finance*,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_____. 2009. *Korean Journalist-11th Reserch*,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_____. 2012. *Summary of Press Consumer Survey*,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Ku, Gyu-tae. 2012. "A Study of the Candidates' News Release during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Daegu." *Journal of Social Sciences* (Keimyung University) 31(1), 31-45.
- Lim, Hyeon-su and June-woong Rhee. 2010. "The Press'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Press Releas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2), 5-31.
- Nam, Hyo-yun and, Gyu-tae Ku. 2004. "A Study of the Impact of Newspaper Scale on the Use of Local Government's News Releases by Local Newspap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5, 41-64.
- _____. 2005. "A Study of the Impact of Newspaper Financial Stability, Size on the Use of News Releases by Local Newspap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 233-256.

- _____.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Ownership Pattern of the Press on Press Release Use by Each Sector in Local Newspaper."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9(3), 103-137.
- Park, Yong-baek. 2012. A Study on effect of Report Request of Local Government on News Report of Local Media, Chonnam Nation University master's thesis.
- Song, Byoung-weon, Lee, Myung-chun and Yo-han Kim. 2014. "Influencing Factors on the Use of Press Release a Writing News Stories in Local Newspapers - Focusing on the Advertising Pres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4 (4), 146-188.